

약속 어긴 유통업체...과대포장 여전

‘명절 선물도 생일시대! 과일 피자 등 과대포장 사라진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당시 과소비를 막고 환경 보호를 내세워 백화점(5개사)·대형마트(4개사)·기업형 슈퍼마켓(5개사)·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과대포장 근절 방침을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통업체들은 구체적으로 ▲피자·리본 등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재활용기능 포장재를 사용한다 ▲팔판지 상자의 압축강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춰 나간다 ▲포장재 인쇄는 4색도 이내로 한다 등의 실천수칙까지 제시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 등이 취급하는 상당수 설 명절 선물세트 제품들이 과대 포장된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정부와 유통업체



설 선물 과일 피자에 재활용 안되는 채반 사용 친환경 포장 한다면 2년전 실천 협약 무색

스스로가 밝힌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10일 둘러본 광주지역 백화점(3곳)과 대형유통할인매장(3곳), 기업형 슈퍼마켓(3곳) 등이 내놓은 설 명절 선물용품의 경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정도가 심각했다.

롯데백화점 식품코너에 전시된 ‘제주과일세트’의 경우 13개 과일 모두가 색종이

로 장식돼 있었고 인근에 전시된 포도와 파인애플 선물세트도 비슷했다. 과일세트에 두르는 피자를 전면 제거하고 기타 1차 식품 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었던 방침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과일 포장에 피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자로 둘러진 채 날개 포장된 친환경 사과·배 혼합 세트.



재활용이 불가능한 나무재질의 채반과 함께 포장된 전북 선물세트.



피자 1개당 100원~150원이 절감되고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한 상자에 1500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수산물 코너는 전북, 굴비, 랍스타 등 선물세트 수십 개는 나무 채반에 포장돼 팔리는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겠다는 협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NC백화점내 전시된 사과·배 등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는 ‘명품’이라는 글씨가 적힌 피자가 날개마다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랩 포장이 추가돼 있었다. 마른말치, 마른새우 세트도 나무 포장재에 담긴 채 ‘명품 선물세트’라고 적힌 피자도 장식됐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곱감 선물세트가 피자를 두른 채 나무 채반에 담겨 전시돼

있었다. 매장 냉장고에 진열된 파인애플과 멜론 등도 보라색 리본이 장식된 종이 포장재로 씌워 소비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홈플러스에선 태국 망고 선물세트와 흑화고·백화고 등 임산물 세트가 각각 피자가 붙은 채 취급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통업체 친환경 포장 협약 담당자와 만나 (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유통업체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의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도 없어 정책이 걸림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쌍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 한데도 불필요한 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약 자체가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일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북구청 직원 사랑의 헌혈

겨울방학과 한파가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북구가족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가한 북구청 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법원 “홍복학원, 교사들이 빌려준 7억원 갚아라”

홍복학원 산하 대광·서진여고 교사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학교 법인과 설립자 이홍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이홍하씨를 대상으로 한 A씨 등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대광·서진여고 교사 A씨 등 37명이 학교법인 홍복학원 및 학원 설립자 이홍하씨를 상대로 낸 ‘빌려준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에서 “홍복학원은 교사들에게 7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소가 제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태가 어려운 학교측의 부탁을 받고 1인당 500만~1억5000만원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하 1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복학원은 교사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갚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돌려받게 된 금액은 소송가액의 절반 가량으로 이들은 재판 도중 일정 비용을 변제받았다.

한편, 홍복학원 설립자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지 1년 3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김지용기자 dok2000@

한려대 총장, 횡령 혐의 고발당해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추진교수회(대표 김도연)는 광양 한려대 교비·사학연금 횡령 등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이홍하씨의 부인인 총장 서모씨를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회는 고발장을 통해 “서 총장은 한려대 교비 관리·지출에 대한 총괄 책

임을 맡고 있으면서 총장 직인인 사무처장 직인을 법인기획실에 맡겨 남편이 공사비 명목 등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서 총장이 남편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돈은 매년 21억원 이상, 6년간 130억원이 넘지만 한 푼도 반환한 사실이 없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아파트측, 남구에 응벽 안전진단 수차례 요구했었다

붕괴 사고 관리 부실 지적

지난 5일 응벽이 붕괴된 광주 대화아파트 측이 사고가 나기 전 수 차례 이상 남구에 응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진단 실시 요구를 남구가 묵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너진 응벽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남구의 관리 부실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 남구 대화아파트 측은 10일 아

파트 뒤편 소방도로 응벽이 붕괴되기 전 매년 1~2차례 남구에 해당 응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화아파트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6월과 12월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뒤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로부터 “해당 응벽이 위험스러우니 응벽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남구에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을 듣고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를 수년째 안전진단하고 있는 한국구조물안전연구소 “1년에 2차례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면 최근 무너진 응벽이 위험스럽다는 걸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정도였다”면서 “관리소장에게 안전진단을 구청에 요구하라고 했고 실제로도 아파트 측에서 매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는 지난 1995년 대화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인접 소방도로와 문제의 응벽을 기부채납 받은 뒤 여태 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은 단 한차례

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는 “응벽이 부실하게 지어졌더라도 정기적인 안전진단만 이뤄졌다면 위험성을 파악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응벽 보강작업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청 측이 아파트 측의 요구를 받고서도 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 측은 “아파트 측으로부터 무너진 응벽에 대한 안전진단 요구 민원이 실제 접수됐는지 파악해 보겠다. 현재로서 안전진단 요구 민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을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5천	④ 전대상대 2분 2호 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2호 18개 (1층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중흥동 원룸 룸12개, 상가1개, 주택1개 월세 385만, 매매가 10억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울수리〉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2억, 용 6억)

염주동 상가건물 매매 3층건물 (먹거리코너) 1~2층 사무실 3층 주택 월수익 400만 (주인거주)

매매가 7억 (보 1억 용 3억)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200만, 매가 2억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임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가 3억2천
② 서구 삼우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억, 월수익 70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원지구 모야엘가람 3층 88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가 2억5천	⑥ 서구 삼우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가 4천8백
⑦ 서구 삼우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0억	

(주)대신 010-6670-9800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평수 100평 (전용 80층) 이면도로 코너 학원리모델링함 주차3대 확보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함

보 3천만, 월 130만

나주 상가 사무실

매매 . 임대

- ① 학원 2층 가능, 영강 초교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 (2층 2칸)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북구 운암동 (토 273㎡, 건물 2,916㎡) 감정이 2억4천, 최저가 1억7천
- ②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3㎡) 감정이 1억6천, 최저가 1억 1천
- ③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정이 5억2백, 최저가 3억5천
- ④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정이 8천1백, 최저가 5천6백
- ⑤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정이 35억6천, 최저가 24억
- ⑥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정이 10억8천, 최저가 4억8천
- ⑦ 동구 학동 (토 169㎡, 건물 277㎡) 감정이 4억, 최저가 2억8천

근린 상가

- ⑧ 서구 치평동 (대 37㎡, 건물 165㎡) 감정이 3억6천, 최저가 1억3천
- ⑨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정이 1억2천, 최저가 5천5백
- ⑩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정이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⑪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95㎡) 감정이 6억5천5백, 최저가 4억5천8백

주유소

- ① 남구 양천동 (토 1,335㎡, 건물 135㎡) 감정이 7억8천, 최저가 4억9천5백
- ② 서구 마북동 (토 1,132㎡, 건물 278㎡) 감정이 9억9천, 최저가 6억9천백

토 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정이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정이 1억6천8백,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강의

〈상무점/운암점〉

실전스터디반 모집중

매주 초 개강

이제는 경매 대중화 시대 나만의 재테크 꼭 준비필요!!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실전

직장인반 (저녁7시)

상무점(한국경매학원)

- 수요일 오전10시~12시(저녁7시)
- 평생실전반
- 입찰부터 임대매매, 건축(개발), 리모델링까지

운암점(대한경매학원)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7시~9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

010-6832-9700
062-382-5500